

Session 04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Loving God with All Our Mind)

I.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감성), 성품, 생각(지성)과 힘(자원)의 4가지 영역에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 본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30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한글 KJV, 막 12:30)

- B.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이를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점점 더 동의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잊거나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계속해서 세심하게 먹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 3:13)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 1:17)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마음을 자유케 함) (요 8:32)

- C. 바울이 예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묵상할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런 매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결정)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 D.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이해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출 33:13).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8)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 103:5-7)

E. 우리가 보물을 찾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 2:2-5)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6-17)

F.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수치심과 쓴 마음, 정욕, 감사치 않음과 같이 우리의 사랑에 해를 입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한다.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5)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2)

II. 인간의 마음의 넓이와 힘에 대한 이해

A.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창 1:26). 이것의 한 측면은 인간의 생각이 영원(eternity)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광활하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신비로운 내적인 우주와 같으며, 슈퍼컴퓨터보다 넓은 메모리(기억) 영역을 가지고 있다.

B. 마음의 언어는 이미지이다. 이는 우리에게 영화 스크린과 같이 이미지를 제공한다. 우리의 기억은 끝도 없이 광활한 저장 장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셔서 그분의 진리를 보이시며, 그분과 영원까지 깊고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

C.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영화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 주께서는 그분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위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꺼버릴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은 삶의 너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끊임없는 실재이며 우리 삶의 흐름이다. 우리 육신이 잠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꿈을 꾸며 활동을 한다.

D.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정의해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표현될 뿐이다.

E.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릇된 영화를 지워버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말한다.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롬 12:2)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 12:5)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엡 4:17-23)

- F. 우리가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우리는 목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고삐를 잡을 수 있으며, 우리가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영화의 대분을 써내려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의 이미지를 달아버릴 수 없지만, 이것의 방향성을 조절하고 바꿀 수 있다.
- G.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초자연적인 행하심을 풀어놓으신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장 처음 생각이 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 그분은 우리의 거룩한 상상이 되시며, 정욕과 교만, 두려움으로부터의 달콤한 탈출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안식처와 탈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심호흡 할 때나 홀로 운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 H.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만일 생각이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고 “진리”로만 가득 차기를 구하고 있다면, 이 내면의 광활한 능력의 영역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부분이 된다.
- I.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삶과 시간을 우리 마음 안에서 소비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리에 근간을 두지 않은 것들을 꿈꾸는데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III.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밀접한 관계

- A. 우리의 온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성경적인 패러다임에 동의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은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거절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없애버리거나 성령님을 소멸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다.

5 하나님 아는 것(진리)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5)

- B.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일깨우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Session 04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사랑 그 자체는 지식의 깊은 한 종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경험함으로 연료를 공급받는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따라서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빛(사랑) 가운데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 C. 우리의 사고는 우리 안에 사랑이나 고통이 일어나게 하는 연료이다. 진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며, 성령께서는 여기에 불을 붙이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또는 사단을 향한)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밀어붙이며 이에 대해 문을 열도록 하는 사고들이다.
- D.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는 것과 우리의 행동은 기억을 형성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갈망과 감정들을 형성하시며, 사단도 이와 동일한 일을 한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모두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악한 생각은 우리를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선한 생각은 우리를 성령님과 연합시킨다.
- E. 우리가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며 감정들은 거룩한 소망들로 살아나게 된다. 성령님께서 기억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놓으신다.

IV.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 진리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기

- A.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보느냐와 관계가 있다.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 안에 많은 쓴 마음을 남기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남긴다.
- B.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셨음을 분별해냄으로 우리 안에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극적인 관계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하고 닫게 하기도 한다.
- C.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의해 형성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에 갇혀있고 조정당하고 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쓴 마음과 수치스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묶여있는 곳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디에서부터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는지와, 어디서부터 진리 대신 거짓말로 인해 실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를 원하신다.
- D.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과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 E.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신뢰와 직관을 열어준다(신 32:7).

Session 04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 F. 과거는 어디로 갔는가? 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그냥 잊혀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고백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치유되어야 한다.
- G.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이다(고전 3:11-15).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99.9% 이상은 우리에게 과거가 되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던 결정들과 이 결정들에 대한 상급의 모양으로 남는다. 이는 현재에도 사실일 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우리의 결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 H. 사단의 계획은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긍정적인 실제들을 잊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남아 있다면 이 과거는 그저 과거로 남지 않고 해악을 끼친다.
- I. 죄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이에 대해 싸울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아담이 하와를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만일 하와가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창 3:1-7)? 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J. 우리는 그분의 값없는 용서하심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한다.

10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0-11)

- K. 과거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우리는 과거를 단순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리로 승리해야 한다. 과거는 계속적으로 치료책을 찾는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장면들을 사용해서 반쪽짜리 진리로 우리를 정죄한다. 사단이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고백하지 않은 죄이다. 우리의 감옥은 우리 과거의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사단이 원하는 감옥의 건축 재료는 우리의 실패와 쓴 마음이다.
- L. 과거에 대한 정죄는 우리가 그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림으로 잠잠케 되어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눈을 감고 과거의 실패와 패배의 박물관과 감옥에서 살아간다.
- M.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실망을 이겨나가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진리로 해석해야 한다. 실망으로부터 오는 실족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도록 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과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공격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공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자유롭게 자라나기 위해 실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면해야 한다.
- N.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롭고 사랑스런 리더십에 맡겨야 한다.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 31:5)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19)

V.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 진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

- A.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9 그(이스라엘)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애 1:9)

- B.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을 때, 시간을 주의 깊게 사용하지 않고 살게 된다. 비전이나 명확한 삶의 계획 없이는 백성들은 망하거나 시간을 규모 없이 쓰게 된다.

18 목시(삶의 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29:18)

18 환상(삶의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한글 KJV, 잠 29:18)

- C.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과 전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우리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명확한 미래 없이는 정체성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을 때 훈계를 더 잘 받아들인다.

- D.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와도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와도 상관이 있다. 소망은 미래에 닿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우리 자신의 헌신은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나치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 1905-1997)은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가장 강한 영향력이라는, 과거를 과도하게 강조한 프로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쟁 후에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분석하고,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했다 :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를 결정지은 주요 요소는 그들이 포로수용소에 있던 중에 경험한 일이 아닌,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다.

- E.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경력과 사역에 대한 목표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 목표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여느

Session 04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사람과 다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 비전이 없는 경우 현재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을 수동성과 나태로 빠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 F. 당신의 미래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마음에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결과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 G.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십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믿음의 선배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는데(골 1:9-10; 4:12; 엡 1:17-18), 이는 그가 비전이 있는 것과 미래에 대한 헌신됨이 있는 것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적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시행 계획에는 정기적인 금식과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매일 신약을 10장씩 읽어나갈 것을 추천하며(한 달에 신약을 한 번씩 읽게 됨), 성령 안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며, 한 주에 2일을 금식할 것을 추천한다.

VI.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에 대한 부르심 : 균형에 대한 이해

- A. 바울은 우리를 정죄로 이끄는 과거의 실패를 잊을 것과,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감사를 잊게 만드는 과거의 헌신 또는 성취를 잊을 것을 가르쳤다.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 8 ...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 3:4-13)

- B.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 회개하고 이를 잊어야 하며, 수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거절해야 한다. 자책감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다. 자책감이 당신에게 수치심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책감은 우리의 행동이 나빴음을 말한다. 수치심은 우리가 나쁘다고 말한다.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 10:17)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7-21)

1) 역자주 :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2004, 김영사

Session 04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 C. 우리는 자신이 드렸던 헌신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사역이나 환경을 받을만하다고 느껴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희생적 헌신을 잊어야 한다. 우리는 한때 어둠의 상태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다(엡 2:1-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감사로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 자들인지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그분과 관계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셨다.

7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7-10)

- D.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 32:7)

8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 107:8)